



기획시리즈



이상웅/향촌 조경수, 조경수 생산  
유통 심의위원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행정리 250  
(0339) 353-0747

**식물**의 번식 방법에는 종자를 파종하여 묘목을 생산하는 실생번식과 식물 자체의 일부를 끊어 발근시키거나 접목을 하여 새로운 개체를 얻는 무성번식으로 크게 대별된다.

접목 번식은 대목과 접수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게 되므로 제반 생산경비가 커지게 되는 것이 단점이라 하겠으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귀중한 식물을 다량으로 번식할 수 있는 수단이다.

다량번식을 할 수 있다하는 의미는 실생번식과 같이 종자를 뿌려 한번에 수많은 양의 묘목을 생산할 수는 없지만 유전적으로 특출한 특정된 개체를 가장 빠른 기간 내에 번식하는 수단은 삽목이나 혹은 접목번식이라 하겠다.

## 접목묘의 생산에 따른 일반 상식

둘째, 어미나무의 유전적 형질을 계승한다.

즉 접목을 한 후 접수에서 자란 새로 성장한 식물은 열매, 잎, 그리고 줄기 등의 모두가 접수에서 따낸 어미나무와 유전적 형질이 같다는 뜻이다.

셋째, 개화, 결실 연도가 단축된다.

접목하여 생산된 묘를 식재하면 씨를 파종하여 얻은 실생묘보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기간이 빨라진다.

이는 수종별, 접수를 채취한 어미나무의 수령별, 접목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접목묘는 대략 개화결실 연도가 3-4년 단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장년기의 모수보다 노령기, 눈접을 한 묘보다 가지접을 한 묘목이 개화, 결실연도가 빠르다.

넷째, 병충해에 강한 수목의 묘목을 생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자생하는 밤나무는 밤나무순혹벌에 대한 피해가 심하여 이에 적응력이 강한 일본 품종의 밤나무를 접목에

의해 생산하게 된다.

### 1. 접목시기

접목시기는 수종 및 접목방법에 따라 다르다.

대개 가지접을 하는 경우에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경까지 실시하며 눈접의 경우에는 8월 말에서 9월 중순경에 실시하게 된다. 소나무의 접목은 대목과 접수의 수액이 이동하기 전 3월중으로 완료해야 한다. 접목시기가 늦어지면 송진이 너무 나오게 되어 활착이 좋지 못하다.

박접에 의해 접목하는 밤나무 같은 경우는 접수만 잘 저장되어 있다면 4월 말까지도 접목이 가능하다.

눈접을 한다하여도 복아접이 아니고 수피를 갈라 내고 접목하는 "T"자접인 경우 9월 초를 경과하면 꺾임이 잘 벗겨지지 않아 활착이 좋지 않으므로 8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장미접목같은 경우 묘목을 속히 성장시켜 8월 말까지

접목을 완료한다.

은행나무, 목련과 같이 복아접을 하는 경우에는 9월 중순경 추석 전에 접목을 완료하여도 별로 늦지 않다.

가지접의 경우 대목은 물이 오른 상태, 접수는 물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해야 활착율이 높지만 그렇지 않고 접수도 물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더욱이 싹이 터오는 접수를 사용하면 접목 후의 활착율은 기대하지 말아야함을 기억한다. 아래의 그림으로 어떠한 상태의 경우가 활착이 가장 좋은 조건인가를 비교 검토하면 그림 (가)가 가장 유리하다. 그 이유는 대목은 충분히 수액이 유동하는 상태에서 물이 안오른 접수를 접목하면 대기 온도가 점차 올라감에 따라 접수가 서서히 물이 올라가며 잘 활착이 되게 된다.

따라서 접수를 어떻게 하면 물이 오르지 않은 휴면 상태에서 보관 저장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는 미리 접수가 물오르기 1개월 전쯤 접수를 채취하여 축축한 톱밥과 버무려 음지쪽 1m 이하에 매장하여 두던가 혹은 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냉동창고 -5℃~5℃정도 되는 곳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접목시 찾아 쓰면 편리하다.

### 2 접목의 원리

접목의 요령은 한마디로 접수와 대목의 형성층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형성층이란 수목의 목질

부와 수피의 경계선을 말한다.

### 3 접목 방법

접목은 대목과 접수의 형성층을 일치시키는 작업 수단을 말하며 그 방법은 매우 여러가지가 있다.

가지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쪼개접(할접), 깎기접(절접), 꺾질을 벗기고 실시하는 박접을 들 수 있다.

쪼개접은 대목과 접수의 굵기가 거의 비슷한 경우 대목의 한가운대를 양쪽 같은 양으로 쪼개고 접수를 도끼날처럼 깎아 끼는 방법을 말하며 소나무 접목에서 많이 이용된다. 깎기접은 대목을 가르는 양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방법으로 가지접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박접은 대목의 수피가 두터운 경우에 이용되며 이중 가장 손쉬워 큰 숙련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상과 같은 방법중 어느 방식을 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때그때 대목의 굵기와 수피의 두께 및 그 수목의 특성을 보아 결정한다.

눈접에서는 주로 T자접과 복아접을 이용한다.

목련 접목의 경우 여자 2인이 넣은 눈을 결박하여 가고 남자 접사 1인이 접목하게 되는데 1일 3명이 한팀으로 하면 웬만한 접사는 2,000주 이상을 접목할 수 있으며 은행나무의 접목을 위와 같이 하여 한팀이 1,000~1,500주 이상의 접목을 할 수 있다.

기타 유실수 및 장내접 같은 경우에는 T자접 방법으로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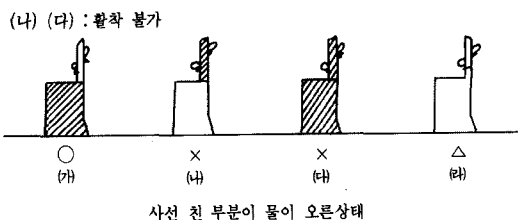
가지접은 대목을 자른 후에 실시하지만 눈접의 경우는 나무를 세워둔 상태에서 실시함이 보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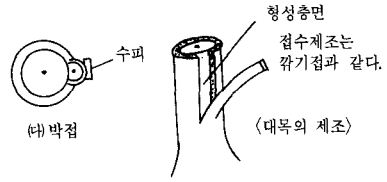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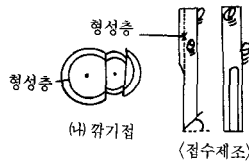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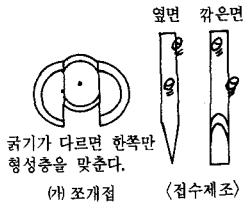
장미접목은 작업상의 편리를 위하여 윗가지를 좀 자르고 잔가지를 정리하고 실시한다.

또한 목련과 장미의 접목은 뿌리 근처에 접목을 하게 되므로 대목 밑의 흙을 긁어 내야 하며 밑의 잎도 따주어 정리 후에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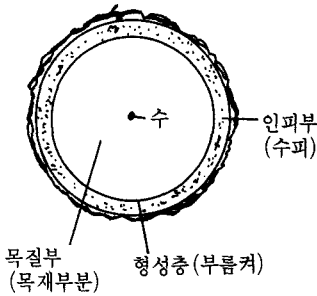
눈접이든 가지접이든 접목한 해에 결박된 끈을 풀어주면 안되고 다음해 봄 결박 끈을 풀어서 눈에서 나온 새 가지를 발생시키며 가지접묘는 결박끈을 풀고 식재하여 준다.

#### ▼ 접목시기





#### 4. 접밀 바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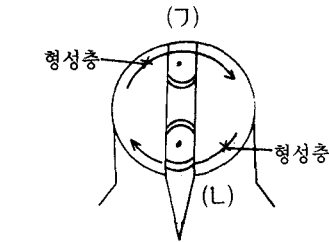


(수목 단면도)

눈점은 접밀 바르기를 실시하지 않으며 가지접에서 실시한다.

접밀 바르기의 효과는 주로 고사하기 쉬운 접수를 중심으로 대목에까지 외부로 증발되는 수분을 막아 접수의 활력유지를 위해 있다.

따라서 접밀을 잘 발라야 하는 부위는 접수의 맨 뒷쪽 절단면이 되며 대목과 접수가 연결되는 부위에 결박이 잘못되어 수분이 증발할 염려가 있는 곳이면 철저히 수분이 증발하지 못하도록 접밀



굵은 대목에 두개의 접수를 꽂은 결과 (7) 부분은 대목과 접수의 형성층이 잘 연결되었으며 (L) 부분은 그러하지 못해 잘못됨.

을 바른다.

접밀은 송진, 파라핀, 밀랍, 돼지기름을 끓여 이용하였으나 근년에는 수목 전정후에 수분증발억제와 살균작용을 하는 "발코트"를 구입하여 이용하면 편리하다.

#### 5. 접목후의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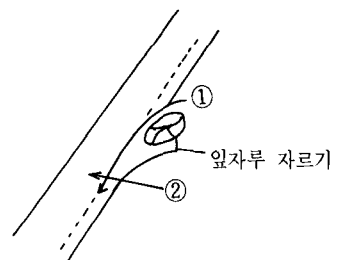
접목후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접수에서 눈이 트고 새싹이 발생하며 대목은 전 해에 매우 많은 영양이 축적된 상태에서 상부를 잘라 주었으므로 매우 많은 새싹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여러 곳의 수도꼭지를

틀면 수압이 약하여지듯 여러 가지가 발생하여 자라게 되면 나무의 세력이 분산되어 접수에서 발생한 새 가지의 자람이 약하게 되므로 접수에서 발생된 새 가지는 하나도 없이 2-3회에 걸쳐 제거해 주어야 하며 접수에서 발생한 가지들도 세력이 제일 강하고 곧은 가지만을 남기고 제거한다.

대목과 접수에서 자란 새 가지를 다시 발생하지 못할 때까지 제거한다.

그후 제초 작업만 실시하면 되는데 제초시 농기구에 의하여 접목묘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눈점제조 칼질순서)

복 아 접

